"밤 샐 준비 됐나요?"

손흥민

유럽 축구리그 주말 개막
손흥민 이번엔 몇골 넣을까?
황의조·이강인·이재성 등
코리안 리거 활약도 관심
PSG로 이적한 메시
챔스 우승할까 관전 포인트

PSG 메시

10개월간 축구팬들의 주말 밤잠을 설치게 할 유럽 프로축구가 곧 개막한다.

이번 주말인 14일 손흥민(토트넘)이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와 스페인 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가 일제히 2021-2022시즌을 시작한다.

리오넬 메시가 그라운드를 누비는 프랑스 리그1은 이미 지난 주말 새 시즌 1라운드를 치렀고, 이번 주말 2라운드를 소화한다. 이들 리그와 유럽 5대 빅리그로 꼽히는 이탈리아 세리에A는 다음 주말인 22일부터 대장정에 들어간다.

가장 큰 관심은 단연 '손세이셔널' 손흥민(29·토트넘)에게로 쏠린다.

손흥민은 16일 0시 30분(이하 한국시간) 홈구장인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라운드로 2021-2022시즌을 시작한다. 손흥민은 특히 지난 2020-2021시즌 리그 17골 10도움을 포함해 총 22골 17도움을 몰아쳐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리그 득점, 공식전 전체 득점과 도움 모두 개인 최다 기록이었다.

지난달 토트넘과 4년 재계약에 합의해 2025년까지 뛰게 된 그는 지난 시즌 이상의 성과를 노린다. 다만 손흥민과 환상의 호흡을 뽐내며 토트넘 공격진을 이끌어 온 해리 케인의 거취는 여전한 변수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는 3명의 한국 선수를 볼 수 있는데, 개막 라운드부터 '코리안 더비'가 예고됐다. 이재성(29)의 새 소속팀 마인츠와 황희찬(25)이 뛰는 라이프치히가 15일 오후 10시 30분 독일 마인츠의 메바 아레나에서 열리는 분데스리가 1라운드에서 맞붙는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의 '신흥 강호' 라이프치히 유니폼을 입었으나 출전 시간이 많지 않았던 황희찬은 팀 내 입지를 넓히는 게 급선무다.

지난 시즌 리그 26경기에 출전해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을 확인한 프라이부르크의 윙어 정우영(22)은 14일 오후 10시 30분 빌레펠트와의 1라운드를 앞두고 있다.

2020 도쿄올림픽에 나섰던 프랑스 리그1 보르도의 황의조(29)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발렌시아의 이강인(20)은 이적설에 휩싸인 가운데 일단 기존 소속팀에서 새 시즌을 맞이한다.

EPL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리그 2연패 여부다.

라힘 스털링, 리야드 마흐레즈, 가브리에우 제주스로 이뤄진 맨시티 3각 편대는 여전히 리그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시즌 2위를 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팀 첼시, 2019-2020시즌 우승팀 리버풀이 맨시티의 대항마로 거론되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 게 현실이다.

지난 시즌 7위에 그친 토트넘은 아직 이렇다 할 전력 보강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또 어려운 시즌을 보낼 전망이다.

라리가에서는 메시가 사라진 FC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R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AT마드리드), 세비야 등 4개 팀이 우승컵을 놓고 각축을 벌일 전망이다.

리그1에서는 기존 네이마르, 킬리앙 음바페에 메시까지 품에 안은 파리 생제르맹(PSG)의 왕좌 복귀 여부가 최대 관심거리다.

분데스리가에서는 '절대 1강' 바이에른 뮌헨이 리그 10연패에 도전하며, 세리에A에서는 지난 시즌 4위에 그친 유벤투스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앞세워 정상 복귀에 나선다. 각 리그 강호들이 총출동하는 2021-2022시즌 UCL은 현지 시각으로 오는 26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조별리그 조 추첨식을 한다. /연합뉴스

광주FC "연패 탈출" 전남은 "연승 가자"

주말 그라운드 축구 대전

광주FC가 연패 탈출을 위해 전남 드래곤즈는 연승을 위해 주말 그라운드에 오른다.

광주는 오는 15일 오후 8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25라운드 경기를 펼친다.

지난 8일 서울에 이어 11일 전북 안방에서 연달아 원정 경기를 치른 광주는 2패만 안고 돌아왔다.

서울에서는 지동원에 일격을 당했고 전북 원정에서는 0-3의 대패를 기록했다.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역습으로 기회를 노렸지만 전반 30분 김민혁, 33분 일류첸코에게 연달아 골을 내줬다. 후반에도 일류첸코에게 멀티골을 허용하면서 광주는 쓴 패배를 기록했다.

11위 성남 보다 두 경기를 더 치른 상황이지만 광주는 승점 3점 차로 뒤져 12위다. 성남과 더 멀어지면 안된다.

광주는 안방에서 인천을 상대로 연패 탈출에 나선다. 매년 '강등후보'로 언급되던 인천이지만 올 시즌 분위기가 다르다. 현재 8경기 연속 무패(4승 4무)를 달리며 승점 30점, 7위로 파이널 A 진출까지 노리고 있다.

무고사와 아길라르, 네게바 등 핵심 공격수와 김광석, 오반석, 오재석 등 베테랑 선수들이 탄탄하게 팀을 이끌어가고 있다.

전력 열세의 광주는 신예 선수들의 패기로 승부에 나선다.

광주는 높이의 허율과 스피드의 엄지성으로 이어지는 유스 출신 듀오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헤이스의 볼키핑과 키패스, 중원의 수비력으로 상대를 압박하면서 승부를 해야 한다.

올 시즌 인천과는 1승씩 주고받았다. 7라운드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엄지성과 이희균이 프로 데뷔골을 작렬하면서 극적인 2-1 승리를 만들어냈다. 특히 이희균은 극장골을 기록하면 경기장을 들썩이게 했다.

적지에서 열린 15라운드 경기에서는 엄원상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송시우에게 경기 종료 직전 역전골을 허용하며 1-2패를 기록했다.

전남드래곤즈는 FA컵 승리의 기운을 이어 리그 1위 싸움에 나선다는 각오다.

전남은 지난 11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2021 하나은행 FA컵 8강전에서 1-0 승리를 거뒀다.

리그가 엇갈리면서 3년 만에 재개된 '제철 더비'에서 사무엘이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K리그1의 포항을 제압한 전남은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 홈경기에 나선다.

FC안양과의 하나원큐 K리그2 2021 25라운드 경기가 14일 오후 7시 안방에서 진행된다.

전남은 지난 24라운드에서 대전하나시티즌과 만나 득점 없이 비기면서 그대로 나란히 2·3위를 기록하고 있다. 1위 김천상무가 승점 2점 차로 눈앞에 있지만 4위 안양도 2점 차로 전남을 쫓고 있다.

숨 막히는 선두싸움에서 전남이 승리와 함께 안양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올림픽 무대 설레고 즐거웠다"

'국가대표 에이스' KIA 이의리

도미니카전 1점 주니까 경기 풀려
미국전은 긴장 안하고 던져
방심할 때 홈런 맞아 제일 아쉬워
아시안게임·WBC 등에서도
한결같이 최선 다해서 뛰겠다

지난 1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역투한 이의리. /연합뉴스

큰 무대가 더 즐거웠던 '특급 루키' 이의리다.

이의리는 올 시즌 KIA 타이거즈 최고의 '인기스타'다. 광주일고를 졸업하고 프로 무대에 뛰어들자마자 선발 자리를 꿰찼고, 신인답지 않은 배짱투로 이내 팀을 대표하는 투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처음 태극마크를 달고 오른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도 이의리는 특별했다.

'막내'였지만 팀에서 가장 많은 10이닝을 소화했고 18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올림픽 참가 선수 중 전체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어려운 상황에서 연달아 선발의 중책을 맡았지만 이의리는 "재미 있었다"고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이의리는 "가서 던지는 게 재미있었다.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게임하고 왔다.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경기 들어가기 전에는 정규시즌과 비슷한 긴장감이었는데 1점 주니까 긴장이 어느 정도 풀렸다"며 "두 번째 (미국과의) 경기 때가 더 재미있었다. 긴장도 안 하고 재미있게 던지고 온 것 같다. 마지막 위기 상황에서 5이닝은 던지고 내려와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위기는 있었지만,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두 경기에서 모두 5이닝을 소화한 이의리에게는 역시 체인지업이 주무기가 됐다.

그는 "한국에서는 출루율에 대한 비율이 높은데 올림픽은 단기전이라 빨리 승부 하려고 해서 체인지업으로 유도가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쉬운 부분은 역시 '한방'이었다.

이의리는 "홈런이 제일 아쉬웠다. 방심할 때 홈런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항상 집중해서 던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표했던 메달을 얻지 못한 것도 아쉽다. 전날 시구 지도를 했던 '양궁 3관왕' 안산의 금메달이 내심 부러운 이의리다.

이의리는 "일정이 빠듯해서 직접 (양궁) 경기는 못 보고 하이라이트로 봤는데 선수단 숙소에 하나씩 (메달리스트라고) 사진이 붙더라. 금메달이 많이 부럽다"고 웃었다.

아쉬움은 있었지만 다른 팀 선배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를 뛴 것도 이의리에게는 좋은 경험이 됐다.

이의리는 "형들이 말하는 게 포스트 시즌보다 재미있기도 하고 다른 느낌이라고 말을 많이 해줬다"며 "(포수들과의) 호흡은 팀에서 하던 것과 비슷한 패턴이었다. 체인지업을 주무기로 하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의 의미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의리는 올림픽 기간 고영표(KT)에게 들은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언급했다.

이의리는 "영표형이 프로는 괜히 프로가 붙은 게 아니라고 했다. 일상생활에서도 관리도 하고 프로처럼 해야 한다고 했다"며 "다른 부분에서는 형들이 하던 대로 유지만 잘하라고 이야기해 줬다"고 말했다.

올림픽을 통해 주가가 수직 상승했지만 이의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뛰겠다는 각오다.

이의리는 "아직 내가 (에이스)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많은 분이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올림픽, 아시안게임, WBC, 프리미엄 12 등에서 최선을 다해서 던질 생각이다"며 "신인왕도 내가 연습한 대로 나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아니라면 열심히 안 한 것이니까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다른 목표 없이 부상 조심하면서 후반기 보내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